

우리나라 임가의 구조와 임업경영
- 2005년의 임업총조사와 임가경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김철상*
국립산림과학원

Structure of Forestry Household and Forest Management in Korea
- The Case of 2005 Forestry Census and the Economic Survey
of Forestry Household -

Chul-sang Kim*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Seoul 130-712, Korea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임업총조사 결과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2005년 임업총조사와 임가경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임가 구조 및 임가 소득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다. 분석결과,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총 임가 수는 97,108가구였으며, 이 중 전업임가는 7,925가구(8.2%), 겸업임가 88,183가구(91.8%)로서 우리나라의 임가는 대부분 겸업인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가의 평균 가구원수는 2.7명으로 농가인구와 비슷하였다. 임가 경영주의 연령은 60대가 32,628명(33.6%)으로 가장 많았으며, 60세 이상인 경영주가 51,505명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었다. 임가 경영주의 임업종사기간은 6개월 이상이 39,229가구(40.4%)로 가장 많았으며, 1개월 미만은 7,216가구(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보유 임가의 산림보유 평균 면적은 4.6ha 이었으며, 업종별로는 벌목업 임가에서 19.5ha를 보유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임가의 가구당 평균 소득은 27,148천원이었으며, 이 중 임업소득은 6,529천원으로 임가소득의 24.1%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임가의 임산물 판매는 500만원 이하인 임가가 51,633가구로 전체 임가의 64%를 차지하고 있었다. 임가의 임업경영비는 가구당 평균 6,566천원이었다. 한편, 임가가 존재하는 마을 수는 우리나라 전체 36,041개 마을 중 32.8%를 차지하는 11,829개 마을이었으며, 행정구역 중 경상북도의 2,979개 마을에 임가가 존재하여 가장 많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organization and the forestry household income applied the result of 2005 Forestry Census and the Economic survey of Forest household in Ko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are 97,108 households of a forester in Korea 2005. Full time forestry household occupied 7,925 families (8.2%), part time forestry household occupied 88,183 families (91.8%). Therefore, the most household of a forester is part time forestry household in Korea. The average people of the household of a forester family is 2.7 people. The age of forest manager are sixties nearly, over sixty years old forest manager occupied 51,505 people (53%). The forest management period of forestry households is more than 6 months in 39,229 families (40.4%), less than 1 month in 7,216 families (7.4%). The average area of forestry households owning forest is 4.6ha. According to the type of business, logging families possesses 19.5 ha. The mean income of forestry households is ₩27,148,000. One of them, forestry income is ₩6,529,000, which occupied 24.1%. Furthermore, forestry households less than ₩5,000,000 forest product sales performance occupied 51,633 families, which is 64%. Forest operating costs is ₩6,566,000 mean per family. In addition, the number of a forestry household resident villages is 11,829 villages, where is 32.8% of whole villages in Korea. There are 2,979 villages where reside forestry household in Gyeongsangbuk-do.

Key words : forestry census, forestry household, full time forestry household, part time forestry household, forestry household resident villages

*Corresponding author
E-mail: k561011@forest.go.kr

서 론

우리나라에서 임업총조사는 1999년 처음 실시¹⁾되었다. 1999년 임업총조사의 조사목적은 영림업, 재배업, 채취업, 등 임업부문의 임업기본구조 및 산업 활동을 파악하여 각종 임업진흥정책 및 국가경제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즉, 임업정책 대상으로서의 임업인과 관련 업종 현황파악, 임업부문 각종 표본조사의 모집단 제공, 임업정책 부서 및 산학연 등의 경영계획 수립 및 연구 활동 자료의 제공 등이다.

2004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임업총조사 업무가 통계청으로 이관되었으며, 2005년 임업총조사는 시의성 있는 자료 제공을 위하여 임업총조사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농업·임업 및 어업총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2005년의 임업총조사에서는 첫째, 임가를 ㉠조사기준 현재 산림 3 ha 이상 보유하면서 지난 5년간 육림작업 실적 있는 가구, ㉡지난 1년간 벌목업, 양묘업을 경영한 가구, ㉢지난 1년간 채취 또는 재배한 임산물의 판매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가구 등으로 정의하고, 1999년 임가의 정의 중, 종실류 보유(본수, 면적)에 의한 임가 편입, 임업 종사일수에 의한 임가 편입 항목 등을 제외하였다. 둘째, 1999년 임업총조사에서는 분류하지 않았던 전업임가²⁾와 겸업임가³⁾(1종 겸업임가, 2종 겸업임가)로 임가를 세분화하였다. 셋째, 1999년 임업총조사 조사항목 중 주관성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임가의 향후 경영계획, ㉤경영예정 기간, ㉥가계총소득 및 부채, ㉦휴양림 경영, ㉧영림단 운영, ㉨야생조수사육, ㉩문화용품 등은 조사항목에서 제외되었다. 넷째, 2005년 임업총조사에서는 ㉪경영주의 임업 종사경력 및 혼인상태, ㉫임업경영형태, ㉬거처형태, ㉭PC 활용여부와 용도 및 홈페이지 개설 여부 등을 신규 항목으로 추가함에 따라 임가 인구의 특성 및 임가의 실태 파악을 가능하게 하였다. 반면, 2005년 임업총조사 결과에 나타난 아쉬운 점은 2005년 조사항목에 “임가의 가구별 소득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항목과 고용 노동력의 공급 및 임업경영의 재해에 관련한 조사항목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1999년 임업총조사와 2005년 임업총조사의 조사 대상 즉, 임가의 정의와 조사항목이 서로 다르기 때

문에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지난 10년간 임업구조 변화의 직접적 비교 분석은 곤란하다. 그리고 1999년 임업총조사와 2005년 임업총조사 결과를 이용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고, 산림정책 자료로의 활용 또한 미미하다 할 것이다.

반면, 농업부문의 경우 농업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의 농업구조에 대한 변화분석(김정호 등, 2003), 2000년 농업총조사 결과에 대한 종합보고(김완배 등, 2002) 등을 통해 농정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세계농임업센서스 결과에 대한 개요 등을 발표(농림수산성통계정보부, 1991)하여 세계임업의 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센서스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일본임업의 구조변화와 재편과정(餅田治之, 2002)을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정책수립의 주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산림정책은 과거 산림과 산주 중심의 조림·육림정책 등 산지자원화정책이 대세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국민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다양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는 산림환경서비스와 휴양정책 등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어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WTO/DDA 및 FTA 양자간 협상 등 시장개방 압력은 더욱 확산되어가고 있는데 반하여 국내 임업은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업의 산업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임업을 주업 또는 겸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임가를 정책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업총조사 결과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2005년 임업총조사와 임가경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임가 구조 및 임가 소득에 대한 구조 파악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실시한 임업총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임가 구조 및 임업경영, 소득수준 등을 파악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추진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이러한 연구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임업총조사 결과 보고서에 나타난 자료가 충분한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

¹⁾1999년 임업총조사 설계를 담당했던 당시 임업연구원 임업경제과 자료에 따르면, 임업총조사 실시 배경은 “산림청 개청이후 국토녹화의 완성과 임업진흥촉진법 시행 등 임업여건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21세기 임업진흥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임업총조사를 실시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한편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우루과이 라운드(UR) 농산물 협상이 가시화되면서 이에 대비하는 정책과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의한 시장개방 압력 및 IMF 사태 등에 대응하는 구조개선 정책 추진이 매우 필요했던 시기였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²⁾전업 임가라 함은 지난 1년간 임업이외의 일에 1개월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없는 임가를 말함

³⁾겸업 임가라 함은 지난 1년간 임업이외의 일에 1개월 이상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임가를 말하며, 1종 겸업임가는 임업수입이 임업이외의 수입보다 많은 임가를, 2종 겸업임가는 임업이외 수입이 임업수입보다 많은 임가를 말함.

수행을 위하여 1999년 제1회 임업총조사 자료와 2005년 임업총조사 보고서, 2005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보고서 및 2005년 임가경제통계 등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우리나라 임가의 구조

1) 경영형태 및 업종별 임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임업총조사 결과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총 임가수는 97,108가구이다. 이 중, 전업 임가는 7,925가구로서 전체 임가의 8.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겸업 임가는 88,183가구로 전체 임가의 91.8%를 차지하고 있었다.

업종별로는 재배업⁴⁾의 임가가 가장 많아 87,643가구로 전체 임가의 90.3%를, 다음으로 채취업 임가가 6,883가구로 7.1%, 육림업의 임가가 1,928가구로 2%, 양묘업 임가가 527가구로 0.5%, 벌목업 임가가 126가구로 0.1%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임가는 겸업 임가가 전체 임가의 약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업수입보다 임업이외의 수입이 많은 2종 겸업 임가가 전체 임가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임가의 가구원 구성

임가의 평균 가구원 수는 2.7명으로 농가의 가구당 인구수⁵⁾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표 2>에서 보는

표 1. 전·겸업 및 업종별 임가수.

(단위 : 가구)

구분	계		전업 임가		겸업 임가					
	임가	%	임가	%	소계		1종		2종	
					임가	%	임가	%	임가	%
계	97,108	100.0	7,925	100.0	89,183	100.0	21,607	100.0	67,576	100.0
%	100.0	-	8.2	-	91.8	-	22.3	-	69.6	-
육림업	1,929	2.0	92	1.0	1,837	2.1	85	0.4	1,752	2.6
벌목업	126	0.1	22	0.3	104	0.1	47	0.2	57	0.1
채취업	6,883	7.1	376	4.7	6,507	7.3	1,998	9.2	4,509	6.7
양묘업	527	0.5	63	0.8	464	0.5	101	0.5	363	0.5
재배업	87,643	90.3	7,372	93.0	80,271	90.0	19,376	89.7	60,895	90.1

자료 : 통계청. 2005년 임업총조사보고서

표 2. 임가의 평균 가구원수.

구분	전체 임가	육림업	벌목업	채취업	양묘업	재배업
가구원수(명)	2.7	2.9	3.1	2.8	3.2	2.7

자료 : 통계청. 2005년 임업총조사보고서

표 3. 임가 경영주의 연령별 분포.

(단위 : 가구)

구분	전체 임가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가구	4세대 가구 이상	1인 가구	비혈연 가구	
	임가	%							
계	97,108	100.0	42,698	32,970	10,068	320	11,002	50	
%	100.0	-	44.0	34.0	10.4	0.3	11.3	0.1	
연령	20-29	174	0.2	15	111	31	1	16	-
	30-39	3,305	3.4	150	2,167	767	34	187	-
	40-49	15,879	16.4	2,159	9,451	3,470	62	730	7
	50-59	26,245	27.0	9,941	11,613	2,712	97	1,864	18
	60-69	32,628	33.6	18,866	7,315	2,016	107	4,310	14
	70-79	17,138	17.6	10,595	2,102	994	16	3,421	10
80 이상	1,739	1.8	972	211	78	3	474	1	

자료 : 통계청. 2005년 임업총조사보고서

⁴⁾ 재배업에 포함되는 품목으로는 산나물 재배, 약용작물 재배, 관상작물 재배, 밤나무 재배, 호두나무 재배, 대추나무 재배, 뽕은 감 재배, 잣나무 재배, 은행나무 재배, 복분자 재배, 기타유실수 및 표고버섯 재배 등임

⁵⁾ 농림통계연보(2006)에 따르면, 2005년의 농가 호수는 1,272,908가구, 농가 인구수는 3,433,573명으로 농가당 인구는 2.70명

표 4. 임가 경영주의 임업종사 기간.

(단위 : 가구)

구분	임가	1개월 미만	1-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계	97,108	7,216	27,233	23,430	39,229
%	100.0	7.4	28.1	24.1	40.4
전업	7,925	250	1,354	1,376	4,945
%	100.0	3.2	17.1	17.4	62.4
겸업	89,183	6,966	25,879	22,054	34,284
%	100.0	7.8	29.0	25.1	39.6
1종	21,607	651	4,746	5,347	10,863
2종	67,576	6,315	21,133	16,707	23,421

자료 : 통계청. 2005년 임업총조사보고서

바와 같이, 양묘업과 벌목업 임가의 가구원 수가 각각 3.2명, 3.1명으로 높았으며, 육림업과 재배업 임가의 가구원 수는 각각 2.9명, 2.7명으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것은 양묘업과 벌목업 임가의 소재지가 타 업종의 임가에 비해 대도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임가 경영주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이 60대인 경영주가 가장 많아 전체 임가의 33.6%를 차지하는 32,628명이었으며, 다음으로 50대 27%, 70대 17.6%, 40대 16.4% 순이었으며, 80대 경영주도 1,739명으로 1.8%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60대 이상인 임가의 경영주가 전체 임가 경영주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5년의 농림어업 취업자⁶⁾ 1,815천명 중, 60세 이상인 취업자가 995천명으로 54.8%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임가의 경영주가 상대적으로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가 경영주의 임업종사일 실태를 살펴보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월 이상 임업에 종사한 경영주는

표 5. 임가의 가구원 중 임업종사원.

(단위 : 가구)

구분	임가	1명	2명	3명	4명 이상
계	97,108	43,210	50,044	3,030	824
%	100.0	44.5	51.5	3.1	0.9
육림업	1,929	1,715	201	10	3
벌목업	126	107	19	-	-
채취업	6,883	5,123	1,650	89	21
양묘업	527	352	155	16	4
재배업	87,643	35,913	48,019	2,915	796
%	100.0	41.0	54.8	3.3	0.9

자료 : 통계청. 2005년 임업총조사보고서

39,229개 임가의 경영주로서 전체의 40.4%를 차지하고 있었다. 임가의 경영주가 6개월 이상 임업에 종사한 경우 전업 임가는 4,945개 임가로 전체 전업 임가의 62.4%를 차지한 반면, 겸업 임가는 34,284개 임가로 전체 겸업 임가의 39.6%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가의 가구원 중,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원이 2명인 임가는 전체 임가의 51.5%

표 6. 전업·겸업 및 업종별 임가의 산림보유 실태.

(단위 : 가구)

구분	계	산림 미보유 임가	산림보유 임가							평균산림 보유 면적 ^{주1)} (hr)	
			소계	1 ha 미만	1~3 ha 미만	3~5 ha 미만	5~10 ha 미만	10~30 ha 미만	30 ha 이상		
계	97,108	64,636	32,472	9,841	10,951	5,419	3,975	1,742	544	4.6	
%	100.0	66.6	100.0	30.3	33.7	16.7	12.2	5.4	1.7	-	
전업	7,925	6,046	1,879	591	539	323	253	119	54	6.0	
겸업	89,183	58,590	30,593	9,250	10,412	5,096	3,722	1,623	490	4.5	
임가의 업종	육림업	1,929	-	1,929	22	309	681	534	268	115	10.9
	벌목업	126	41	85	21	15	13	17	8	11	19.5
	채취업	6,883	3,337	3,546	595	935	668	779	448	121	7.3
	양묘업	527	266	261	91	64	34	32	27	13	7.5
	재배업	87,643	60,992	26,651	9,112	9,628	4,023	2,613	991	284	3.7

주1: 평균 산림보유 면적은 산림보유 임가의 평균을 말함
 자료 : 통계청. 2005년 임업총조사보고서

⁶⁾ 농림통계연보(2006)에 따르면, 2005년 기준 농림어업 총 취업자는 1,815천명이었으며, 이 중, 30세미만 취업자는 29천명, 30-39세 취업자 84천명, 40-49세 취업자 286천명, 50-59세 취업자 421천명, 60세 이상 취업자는 995천명

를 차지하는 50,044개 임가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명인 임가가 43,210가구로 전체 임가의 44.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3명 이상인 임가는 3,854가구로 전체가구의 4%에 불과하였다.

업종별로는 재배업 임가에서 가구원 중 임업종사원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벌목업 임가에서 가구원 중 임업종사원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임가의 산림보유

우리나라 임가의 산림보유에 관한 특성을 살펴보면,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임가 중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임가 수는 32,472개 임가로 전체 임가의 33.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산림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임가 수는 64,636개 임가로 전체 임가 수의 66.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임가는 산림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임가 수가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임가 수보다 약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가의 평균 산림보유 면적은 4.6 ha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업 임가의 평균 산림보유 면적은 6.0 ha로 겸업 임가의 4.5 ha에 비해 평균 1.5 ha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임가의 평균 산림면적이 가장 많은 업종은 벌목업에 해당하는 임가로서 평균 19.5 ha의 산림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육림업 10.9 ha, 양묘업 7.5 ha, 채취

업 7.3 ha 등으로 평균 산림보유 면적보다 많았던 반면, 재배업 임가의 산림보유 면적은 3.7 ha로 임가 전체의 평균 산림보유면적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벌목업과 육림업의 임가는 임업경영에 있어 산림보유가 높은 상관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재배업 임가의 산림보유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해당 업종의 경영이 주로 산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배라기 보다는 농업부문과 비슷한 형태로 논과 밭에서 재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4) 임가의 지역별 분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6대 광역시에 소재하는 임가는 3,892개 임가로 전체 임가의 4%에 불과하다. 반면에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9개 도에 소재하는 임가는 93,216개 임가로서 전체 임가의 9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경북에 23,715개 임가가 소재하여 가장 많았으며, 경남 18,087개 임가, 전남 13,496개 임가, 전북 12,091개 임가, 충남 9,526개 임가 순이었다.

그리고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총 36,041개 마을 중, 11,829개 마을에 임가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3개 마을 중 적어도 1개 마을에는 임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읍 단위 이상 행정구역에 임가가 존재하고 있는 마을 수는 전체의 16.7%를 차지하는 1,978개 마을이며, 면

표 7. 임가의 지역별 분포.

(단위: 가구)

구분	계		전업 임가		겸업 임가				
	임가	%	임가	%	소계	%	1종 겸업	2종 겸업	
계	97,108	100.0	7,925	100.0	89,183	100.0	21,607	67,578	
%	100.0	-	8.2	-	91.8	-	24.2	75.8	
대도시별	서울	450	0.5	166	2.1	284	0.3	95	189
	부산	321	0.3	75	1.0	246	0.3	64	182
	대구	1,123	1.2	112	1.4	1,011	1.1	167	844
	인천	251	0.3	23	0.3	228	0.3	30	198
	광주	966	1.0	111	1.4	855	1.0	216	639
	대전	533	0.6	59	0.7	474	0.5	74	400
	울산	248	0.3	14	0.2	234	0.3	49	185
	소계	3,892	4.0	560	7.1	3,332	3.7	695	2,637
도별	경기	4,359	4.5	588	7.4	3,771	4.2	921	2,850
	강원	6,195	6.4	296	3.7	5,899	6.6	1,176	4,723
	충북	4,710	4.9	419	5.3	4,291	4.8	781	3,510
	충남	9,526	9.8	571	7.2	8,955	10.0	2,723	6,232
	전북	12,091	12.5	1,044	13.2	11,047	12.4	2,490	8,557
	전남	13,496	13.9	1,131	14.3	12,365	13.9	4,023	8,342
	경북	23,715	24.4	1,754	22.1	21,961	24.6	4,217	17,744
	경남	18,087	18.6	1,386	17.5	16,701	18.7	4,373	12,328
	제주	1,037	1.1	176	2.2	861	1.0	208	653
	소계	93,216	96.0	7,365	92.9	85,851	96.3	20,912	64,939

자료: 통계청. 2005년 임업총조사보고서

표 8. 임가가 있는 마을의 임업형태별 지역별 분포.

(단위: 개소)

구분	총 마을 수	임가가 있는 마을		유실수	표고	산채	약초	송이·수액	기타
		마을 수	%						
전국 계	36,041	11,829	100.0	6,383	1,323	841	768	732	1,782
%	100.0	32.8	-	17.7	11.2	7.1	6.5	6.2	15.1
읍 부	7,686	1,978	16.7	1,058	198	136	139	101	346
%	100.0	25.7	-	13.8	2.6	1.8	1.8	1.3	4.5
면 부	28,355	9,851	83.3	5,325	1,125	705	629	631	1,436
%	100.0	34.7	-	18.1	4.0	2.5	2.2	2.2	5.1

자료: 통계청. 2005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보고서

표 9. 임가가 100개 이상 존재하는 시·군별 마을 수.

(단위: 개소)

구분	임가가 있는 마을 (개)→수	100-150개 마을 미만	150-200개 마을 미만	200-300개 마을 미만	300개 마을 이상
경기	1,230	양평군(147), 화성시(139) 남양주시(120), 포천시(109) 가평군(105)			
강원	1,281	삼척시(121), 홍천군(115) 횡성군(128), 평창군(135) 정선군(112)			
충북	1,238	제천시(100), 보은군(140) 옥천군(146), 괴산군(117) 담양군(115)	영동군(192) 청원군(180)		
충남	2,086	연기군(101), 홍성군(119) 금산군(121), 서천군(147), 예산군(132), 당진군(108)	청양군(170) 천안시(152) 논산시(194)	공주시(222)	부여군(304)
전북	2,462	익산시(115), 김제시(121) 무주군(100), 강수군(127) 임실군(138), 부안군(130)	진안군(179) 남원시(162)	완주군(268) 순창군(225)	고창군(528) 정읍시(315)
전남	2,714	곡성군(147), 구례군(128) 장흥군(127), 강진군(117) 해남군(113), 영암군(146) 부안군(134), 함평군(149) 영광군(122),	정성군(198) 광양시(176) 보성군(157)	순천시(232) 나주시(207) 화순군(204)	
경북	2,979	포항시(113), 구미시(107) 영주시(140), 연천시(141) 군위군(113), 영덕군(114) 예천군(149), 봉화군(118) 울진군(118)	김천시(192) 안동시(153) 문경시(161)	청도군(208) 경산시(200)	상주시(309)
경남	2,488	사천시(133), 거제시(113) 의령군(107), 거창군(134)	고성군(158) 밀양시(151)	하동군(278) 산청군(262) 진주시(246) 함양군(211) 합천군(211)	

주1: ()의 숫자는 마을 수를 나타낸 것임
자료: 통계청. 2005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보고서

단위에 전체의 83.3%를 차지하는 9,851개 마을에 임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북 도내에 2,979개 임가가 있는 마을이 존재하여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는 1,230개 마을로 가장 적었다.

임가 수가 많이 존재하는 마을 수를 시·군별로 살펴보면, 한 개의 시·군에 임가가 존재하는 마을이 가장 많은 곳은 전라북도의 고창군이었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창군에는 총 557개 마을 중 528개 마을에 임가가 존

재하고 있었으며, 이외에 300개 마을 이상에 임가가 존재하는 시·군으로는 충남 부여군에 304개 마을, 전북 정읍시에 315개 마을, 경북 상주시에 309개의 마을에 임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개 이상 존재하는 마을을 갖고 있는 도(道)는 충남(공주시·부여군), 전북(순창군·완주군·정읍시·고창군), 전남(순천시·나주시·화순군), 경북(청도군·경산시·상주시), 경남(하동군·산청군·진주시·함양군·합천군) 등

표 10. 임가소득과 농가소득의 비교.

(단위: 천원/년)

구분	2005년 임가(a)		2005년 농가(b)		임가·농가의 소득 비교(a-b)
	금액	%	금액	%	
소득 합계(A)	27,148	100.0	30,503	100.0	-3,555
소계	23,044	84.9	25,778	84.5	-2,734
경상 소득 ^{주1}	6,529	24.1	11,815	38.7	-5,286
임업외 소득(C)	14,924	55.0	9,884	32.4	5,040
이전 소득(D) ^{주2}	1,591	5.9	4,078	13.4	-2,487
비경상 소득 ^{주3}	4,104	15.1	4,725	15.5	-621

주1: 임업소득, 임업외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을 말함

주2: 공적 연금, 사적 보조금 등

주3: 비경상소득의 항목은 경조수입, 퇴직일시금, 재산순증, 사고 보상금 등

자료: 산림청, 2005 임가경제통계

표 11. 임가의 2005년 업종별 소득.

(단위: 천원/년, %)

구분	임가 전체	벌목업	채취업	밤나무	종실류 ^{주1}	버섯재배	기타재배 ^{주2}
계(A)	27,148	29,125	22,207	26,617	24,474	24,533	31,722
임업소득(B)	6,529	4,655	3,584	5,641	6,516	5,613	12,577
임업소득률 (A/B)*100	24.1	16.0	16.1	21.2	26.6	22.9	39.6

주1: 종실류는 밤나무 재배를 제외한, 호두, 대추, 뽕은 감, 잣, 은행, 복분자 재배 등을 말함

주2: 기타 재배는 산나물 작물(취나물, 더덕, 도라지, 두릅 등), 약용 작물(창출, 산수유, 오미자, 두충 등), 관상작물(조경수, 분재, 야생화 등)의 재배를 말함

자료: 산림청, 2005 임가경제통계

5개 도이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참고하여 임가가 많이 존재하는 마을과 시·군은 상대적으로 적은 시·군에 비해 임업정책 및 지원 대상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산림 및 임업정책의 추진에 앞서 지역 및 대상 선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이와 같은 분석 자료를 활용⁷⁾하는 것이 요구되며, 임업정책 추진의 효율성 및 성과를 높이는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임가의 임업경영

1) 임가의 소득과 임산물 판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임가의 평균 소득은 27,148천원/년이었으며, 이 중, 임업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55%를 차지하는 14,924천원/년 이었다. 임업소득은 6,529천원/년으로 임가 소득의 24.1%를 차지하고 있었다.

2005년 임가의 평균 소득은 농가의 평균소득에 비해 3,355천원/년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국 가구 평균인 29,198천원/년에 비해서는 2,050천원/년 많았다.

임가 소득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타 재배 즉, 관상작물과 약용 작물 및 산나물

류를 재배하는 임가의 가구당 임업소득이 12,577천원/년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호두·대추·복분자 등을 재배하는 종실류 재배 임가 6,516천원/년으로 임업소득이 높은 편이었다. 채취업 임가의 임업소득은 3,584천원/년으로 가장 적었다.

임가의 임산물 판매액 규모를 살펴본 결과,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산물 판매 임가 중 약 64%에 해당하는 51,633개 임가의 판매액이 500만원/년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2005년 임가의 임업소득인 6,529천원/년 보다 적었다.

한편, 연간 판매액이 1억~2억원/년 미만인 임가는 356가구, 2억원/년 이상인 임가는 170개 가구로 연간 판매액이 1억원이 넘는 가구는 526개 가구였다.

2) 임가의 임업경영비

임가의 임업경영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임업경영비로 투입한 총비용은 가구당 6,566천원/년이었다. 임업경영비의 항목별 투입액은 임차료·전기료·감가상각비·조세 등 제반 경비가 가장 많아 3,195천원/년으로 48.7%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어서

⁷⁾“산촌마을 대상지 선정 적지평가 기준표” 상의 평가항목은 ①산촌의 낙후성(부존자원의 낙후성, 주거의 낙후성, 생활 환경의 낙후성, 경제적 낙후성)과 ②산촌의 잠재력 능력(산림자원의 잠재력, 지역 명품의 잠재력, 관광자원의 잠재력), 그리고 ③산촌 개발의 성공 가능성(마을 여건, 마을리더의 역할, 사업수행의 효율성, 지자체장의 관심도)등으로 되어 있음

표 12. 임가의 임산물 판매 규모.

구분	판매실적이 있는 임가	1백만원 미만	1백-5백만원	5백-1천만원	1천-3천만원	3천-5천만원	5천-1억원	1억-2억원	2억원 이상
계	81,009	9,657	41,976	14,382	11,584	1,843	1,041	356	170
%	100.0	11.9	51.8	17.8	14.3	2.3	1.3	0.4	0.2
전업	7,144	703	3,020	1,213	1,366	376	275	128	63
겸업	73,865	8,954	38,956	13,169	10,218	1,467	766	228	107
1종	21,296	880	8,005	4,939	5,554	1,043	614	180	81
2종	52,569	8,074	30,951	8,230	4,124	424	152	48	26

자료: 통계청. 2005년 임업총조사보고서

표 13. 임가의 2005년 임업경영비 내역.

구분	계	재료비 ^{주1}	노무비 ^{주2}	제반 경비 ^{주3}	판매·관리비 ^{주4}
금액(천원)	6,566	1,559	1,519	3,195	293
%	100.0	23.8	23.1	48.7	4.5

주1: 묘목비, 종묘비, 종자 및 종묘비, 비료비, 농약 등의 비용

주2: 고용노동력의 노임 등

주3: 전기료, 광열비, 수선비, 임차료, 이차지급, 감가상각비, 임업용 조세 등의 비용

주4: 임산물 판매용 자재비, 생산관리비 등

자료: 산림청. 2005 임가경제통계

재료비 1,559천원/년(23.8%), 노무비 1,519천원/년(23.1%) 및 판매·관리비 293천원/년(4.5%)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업종별 경영비의 구체적 내역은 공표 자료의 부족으로 분석이 곤란하였다. 임가의 경영 및 소득구조의 업종별 분석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며, 정책 입안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측면에서 조사결과보고서의 결과표(통계표) 내용과 체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결론 및 제언

1)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총 임가수는 97,108가구가이다. 이 중, 전업 임가는 7,925가구로서 전체 임가의 8.2%, 겸업 임가는 88,183가구로 91.8%를 차지하여 겸업 임가의 비중이 매우 크며, 업종별로는 재배업에 종사하는 임가가 87,643가구로 재배업 중심의 임가를 구성하고 있었다.

2) 임가의 평균 가구원 수는 2.7명으로 농가의 가구당 인구수와 비슷하였으며, 임가의 경영주는 60세 이상인 경영주가 전체 임가의 33.6%인 32,628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임가의 경영주가 6개월 이상 임업에 종사한 경우는 전업 임가에서는 4,945개 임가(전업 임가의 62.4%), 겸업 임가는 34,284개 임가(겸업 임가의 39.6%) 이었다.

3) 전체 임가 중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임가는 32,472가구로 전체 임가의 33.5%를 차지하였으며, 산림보유 임가의 평균 산림보유 면적은 4.6 ha(전업임가 6.0 ha, 겸업임가 4.5 ha)이었다. 업종별로는 벌목업 임가가 평균 19.5 ha를 보유하여 가장 많았으며, 육림업 10.9 ha, 양묘업 7.5

ha, 채취업 7.3 ha, 재배업 3.7 ha순이었다.

4) 우리나라의 총 36,041개 마을 중, 11,829개 마을에 임가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3개 마을 중 적어도 1개 마을에는 임가가 존재하였다. 그리고 경북 도내에 2,979개 임가가 있는 마을이 존재하여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1,230개 마을로 가장 적었다. 임가가 존재하는 마을이 많은(200개 이상 존재하는 마을) 시·군으로는 충남의 공주시·부여군, 전북의 순창군·완주군·정읍시·고창군, 전남의 순천시·나주시·화순군, 경북의 청도군·경산시·상주시, 경남의 하동군·산청군·진주시·함양군·합천군 등 이었다.

5) 2005년 임가의 평균 소득은 27,148천원/년이었다. 이 중, 임업소득이 전체 소득의 55%를 차지하는 14,924천원/년이었으며, 임업소득은 6,529천원/년으로 임가 소득의 24.1%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임가의 가구당 소득이 가장 많았던 업종은 산나물과 약용·관상작물 등을 재배하는 기타 재배업으로 가구당 소득은 31,722천원이었으며, 임업소득은 12,577천원으로 나타났다.

6) 임산물 판매 임가 중 64%에 해당하는 51,633개 임가의 판매액이 500만원/년 이하로 2005년 임가의 임업소득인 6,529천원/년 보다 낮았으며, 연간 판매액이 1억~2억원/년 미만인 임가는 356가구, 2억원/년 이상인 임가는 170개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7) 2005년 임가의 평균 경영비는 가구당 6,566천원이었으며, 이 중 제반경비가 3,195천원(48.7%)로 가장 많았으며, 재료비 1,559천원(23.8%), 노무비 1,519천원(23.1%), 판매·관리비 293천원(4.5%) 등 이었다.

8) “임가의 가구별 소득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항

목과 고용 노동력의 공급 및 임업경영의 재해에 관련한 조사항목이 배제되어 있어 임가구조와 임가의 임업경영 실태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2010년에 조사 예정인 임업총조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사 항목의 추가 등 조사항목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9) 임가의 임업형태별 임업종사기간, 재배업 임가의 품목별·규모별 판매액, 1인 임가의 성별 등 공표한 통계 내용의 부족으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향후 보고서 작성 및 통계표 체계의 개선을 위한 밀도 있는 검토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0) 임가가 많이 존재하는 마을과 시·군은 상대적으로 적은 시·군에 비해 임업정책 및 지원 대상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산림 및 임업정책의 추진에 앞서 지역 및 대상 선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임업총조사 통계 자료 또는 임가경제조사의 분석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와 같은 통계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정부정책을 수립할 때,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추구할 수 있으며, 임업정책 추진의 효율성 및 성과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용문헌

1. 김정호, 김태곤, 김배성, 이병훈. 2003. 1990·1995·2000 농업총조사에 의한 농업구조 변화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453 pp. i-v, 141-149
2. 김완배, 김한호, 김기철, 남상정 외7인. 2002. 2000년 농업총조사 종합보고. 통계청 학술연구용역보고서 pp. 1-3.
3. 농림부. 2006. 2005년 농림통계연보. pp. 30-39.
5. 산림청. 2000. 1999 임업총조사 결과 보고서. pp. 31-49.
6. 산림청. 2005. 2005 임가경제통계. pp. 31-49.
7. 산림청. 2007. 2007 산촌생태마을조성 사업계획. pp. 20-27.
8. 통계청. 2006. 2005 임업총조사보고서. pp. 14-277.
9. 통계청. 2006. 2005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보고서. pp. 44-72.
10. 農林水産省統計情報部. 1991. 1990年 世界農林業センサス結果概要. pp. 82-121.
11. 餅田治之. 2002. 日本林業の構造的變化と再編過程 (2000年林業センサス分析). pp. 82-197.

(2007년 9월 18일 접수; 2007년 11월 30일 채택)